

2025학년도 1학기 독서클럽(27기) 테마도서 서평

작성자	문지영	도서명	사피엔스
학번	2511058	저자명	유발 하라리

서평 내용 (개별항목 및 항목별 분량은 자유롭게 조정가능, **1,000자 이상** 작성)

■ 도서 선정 이유 (이 책을 선택한 계기나 흥미를 끈 이유)

*100자 내외

나는 평소에 인간의 역사와 과학에 관한 대중서에 관심이 많았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책은 ‘이 중격죄’ (『코스모스』)로 기입하여 구분해 줍니다. 이하 동일.)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처럼 대중적이면서도 학문적으로 깊이 있는 책을 읽고 싶었다. 그러던 중, 다시 독서를 꾸준히 하기 위해 서 독서클럽에 참가하려고 했고, 마침 지정 테마클럽에서 『사피엔스』를 함께 읽을 회원을 모집하고 있었다.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이 책을 통해 인류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다.

■ 주요 내용 요약

*300~400자

이 책은 인간이 긴 시간 동안(중복된 의미이니, 두 단어 중 한 개를 삭제합니다.) 살면서 일어나는 혁명에 대해 크게 4부로 나눠서 설명한다. 1부 인지혁명에서는 이 혁명을 통해 인간이 신화, 종교와 같이 상상 속의 개념을 믿기 시작하면서 이전에 비해 더 큰 규모의 협력관계에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인류가(누가?)전세계로 대규모 이동하면서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2부 농업혁명에서 인간이 동물을 기르고 정착하기 시작한 사건으로, 인류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노동시간이 증가하고 영양상태가 더 나빠지므로 질병이 생기는 등 개개인의 삶의 질은 더 나빠졌다. 3부 인류의 통합은 농업혁명 이후 인간 사회가 커지면서 이를 유지할 상상의 질서가 필요하게 된다. 그 상상의 질서는 ‘화폐, 제국, 종교’이다. 이 세가지는 허구의 산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거대한 규모로 사람들을 통합시킬 수 있었다. 4부 과학혁명은 인류가 무지를 인정하고, 수학과 과학을 이용해 지식을 탐구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이 저자는 우리의 문명이 상상의 질서를 믿고 지키면서 각각의 문명을 발전시키고 유지할 수 있었다고 공통적으로 말한다.

■ 느낀점 및 인상 깊은 부분

*400~500자

사피엔스는 내가 생각한 과학책이 아니라 역사서였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 인류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나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을 흥미롭게 풀어내준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가치와 질서가 사실은 상상의 질서임을 깨닫게 해준다. 이 책은 인류에게 아주 먼 옛날에 일어난 인지혁명과 농업혁명을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했다. 특히 『사피엔스』 2부 농업혁명에서 “우리가 밭을 갈들인 것이 아니라 밭이 우리를 갈들었다”(책에서 인용한 구절은 큰 따옴표로 구분하여 주고, 출처를 밝혀 줍니다.)라는 문장은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관점이라서 기억에 남는다. 책을 읽으면서 인간과 사회, 문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났고 클럽회원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책이었다.

■ 도서 추천 여부 및 이유

*100자 내외

『사피엔스』는 저자가 인간이 허구와 신화,상상의 질서를 믿는 능력 덕분에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다고 언급한다. 저자는 우리에게 인간이라는 존재와 문명에 대해 끈임없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게 만든다. 이러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이고 대중적이면서 학문적 깊이를 갖춘 책을 원하는 사람에게 추천한다. 또한 독서 모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분량은 많지만, 평소에 생각하지 않는 질문과 이야기(글쓰기가 생각하는 저자의 의도 및 쟁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으로 서술해 보신다면 좋겠습니다.)로 사고를(무엇을?)확장하기 좋은 책이다. 독서클럽에서 함께 읽으며 다양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기 때문이다.

[서평 첨삭 및 제출 방법]

서평 작성 ▶ 스마트자기관리시스템 [\[사고와 표현 과정\]](#) [내외국인 표현능력상당](#) 프로그램 신청 ▶ 첨삭내용 토대로 내용 수정 ▶ 서평 본문 및 첨삭과정(상당 신청 캡처, 첨삭메일 등)을 PDF파일 1개로 합쳐 E-CLASS 커뮤니티 제출